

한국의 혼인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옥임 · 김혜선 (순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I. 서 론

혼인은 인간이 일생동안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안되는 일들 중의 하나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화되는 개인의 지위를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치뤄지는 의례적인 절차를 포함하게 된다. 혼인에 수반되는 의례적인 절차는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인의 진행에 따라 진행되는 많은 일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 또는 풍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그 중에 가족의 형태 또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1970년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 4.5명의 자녀를 냉았으나 1983년을 기점으로 2명 이하로 줄었고 1995년에는 1명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냉는 자녀의 수가 1.7명으로 감소하였다. 현대의 가정들은 이러한 평균자녀수의 감소와 경제발전에 따른 가계소득의 향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 여유있고 넉넉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유있고 넉넉한 생활이 우리의 소비행태를 변화시켰으며 이것이 지속되면서 사회문화현상으로 고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한 예가 혼인과 관련된 우리의 소비문화라고 생각된다. 사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소비와 연결되어지지만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행위는 우리의 문화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단순하게 합리적인 지출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는 혼인예식의 절차나 방법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성향이 많아서 과연 혼인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문화 또는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그 간의 많은 연구들과 결혼 당사자와 부모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혼인의식의 절차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혼인문화의 정착을 위해 그에 알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II. 우리의 혼인문화

1. 혼인의 근본취지

혼인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남·녀의 성적·경제적 결합으로 가족관계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 이 연구는 자유기업센터 연구과제입니다.

(Ember & Ember, 1933, p.166). 현재 결혼은 우리사회에서 사랑하는 남·녀 두사람의 결합이라는 단순한 의미와 더불어 가족과 사회가 유지되는 수단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유영주 외 2인, 1996, p.127).

그러므로 과거에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조상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혼인의 가장 큰 목적이었으나 현대에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주위의 축복 속에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바요한 혼인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 혼례의 절차

① 의혼

증매인이 양가문을 오가며 혼인의 의사를 타진하는 첫과정을 말한다.

② 납채

의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공식적인 청혼을 하는 절차로 서식에 따라 편지를 써서 신랑될 사람의 사주를 적은 단자와 함께 보낸다.

③ 납길(연길)

신부집에서 혼인할 날을 잡아서 신랑집에 알리는 절차로 길일을 잡아 편지에 적어 보내면 신랑에게 입힐 옷의 크기를 묻는 내용도 함께 적어 보낸다.

④ 납폐(납징)

함을 보내는 절차로 함 속에는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보내는 채단 혼수와 예의를 갖추어 쓴 혼서지와 함에 넣은 물건의 이름을 적은 목록을 보내며 신부집에서는 이 청혼서를 받으면 딥장을 보낸다.

⑤ 청기

신부집에서 납길하여 알려온 혼인 날짜를 신랑집에서 확인하고 동시에 신랑집에서 신부가 시댁으로 오는 우귀의 날짜를 정하여 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⑥ 친영과 우귀(신행)

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신랑이 저녁때 신부집으로 가서 전안례(기러기를 전하는 의식)만 올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화서 교배례와 근배례를 올리고 첫날밤을 지냈다. 이튿날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폐백을 올린 뒤 사흘을 묵고 친정으로 갔다가 다시 시집으로 오는 우귀를 했다. 근래에는 폐백까지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신부의 친정에 인사차 다녀오는 형태로 바뀌었다.

3. 현대 혼인의 절차

1969년 제정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그 동안 사회의 변화는 전통혼인과는 다른 새로운 혼속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현재 우리의 혼인절차는 전통혼인의 절차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된 것과 서양혼인의 절차가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의 상업문화와 절묘하게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대의 혼인절차는 자유연애혼에 의한 두 남·녀의 배우자 선택과정, 혼인 당사자의 결정에 부모의 동의를 얻는 양가의 만남, 혹은 약혼의 과정, 이후 함보내기, 혼인식, 폐백, 신혼여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황경애·이길표, 1994)

4. 혼인풍속과 관련된 우리의 소비행동

① 함

함은 전통결혼식의 공식절차 가운데 남아서 함으로 전해진 것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보내기 위해서 예물을 담는 용기를 함이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옻칠을 한 칠함이나 화려한 자개를 사용한 함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오동나무함, 은행나무함, 지함, 나전칠기함 등을 취향에 맞춰 사용하고 있으며 실속을 위주로 신혼여행가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신부집에서 함진아비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노자돈을 주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에는 즐거워야 할 날에 무리한 함값을 요구하여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간혹 보고되고 있다.

② 청첩장

경사가 있을 때 남을 청하기 위해 보내는 초대장을 말한다. 청첩장은 친척이나 곳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사롭고 기쁜 결혼식을 알리고 초청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것이다.

③ 폐백

신부가 신랑 어른께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절차를 말한다. 현대에는 신부측 부모도 같이 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래 폐백음식은 친정어머니가 준비하는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각자 만들기보다 만들어 놓은 폐백음식을 사다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폐백절차가 끝나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폐백음식을 고루 나누어 먹는다.

④ 이바지

결혼후에 신부가 정식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절차인 우귀례(신행) 때 친정어머니가 꾸려주시는 신행음식으로 떡, 과일, 약식, 고기, 밀반찬 등인데 밀반찬은 다음날 신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손쉽게 상을 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혼례에서는 이바지음식을 받으면 그 답례로 며느리에게 큰 상을 내렸고 이 음식의 일부를 다시 친정에 보내는 것이 바른 예절이었다.

⑤ 신랑매달기(동상례)

친척과 벗들이 신랑을 잡아 다리를 묶어 거꾸로 매달고 나무목침이나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면서 폐와 억지를 써서 술과 안주를 뜯어내는 것을 이른다. 동상례를 못했을 경우 사랑방에 밤에 모여 앉아 신부의 집으로 혼식단자라는 것을 보내 음식을 청해 먹는다.

⑥ 예단

신부가 시댁어른들에게 보내는 예물을 말한다. 예단은 격식을 갖춘 마음의 선물이며 많은 비용과

쓸데없는 품목이 많은 예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대로 신랑값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예단에 들어가는 비용의 편차가 매우 심하고 혼인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혼인예식과 관련한 많은 소비행동이 있다.

III.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혼인문화의 폐단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혼인문화의 발전방안을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결혼당사자 및 부모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혼인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은 수명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결혼당사자 및 부모 각각 200여명에게서 개방형 및 폐쇄형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IV. 혼인문화의 문제점과 원인

1. 현재의 혼인문화는 결혼당사자의 미래설계와 양가의 친교와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측면보다는 호화혼인의식과 혼수비용을 자랑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현재의 혼인문화는 결혼당사자와 양가에 대한 축하보다는 의례적인 혼인의식과 하객들의 형식적인 참석으로 변질되어 있다.
3. 혼인의식은 결혼당사자, 양가 및 하객들의 결속과 화합이라는 공유의 장과 시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4. 현재의 혼인의식은 서구적 형식, 남성본위적인 측면 그리고 잘못된 상업주의가 혼재되어 결혼당사자와 양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5. 지나친 과시풍조로 인하여 혼인문화가 천편일률적으로 형식화되고 있다.

V. 건전한 혼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1. 혼인문화는 혼인당사자와 양가친족 및 친지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새롭게 정착되어야 한다. 혼인은 남녀 개인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양가의 결속과 화합이라는 측면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구적인 형식과 잘못된 상업주의적 폐단이 짙은 혼례형식과 혼인시 지출되는 과다한 비용이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혼인문화의 근

본취지와 혼인 당사자들의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한 혼인문화의 근본취지가 새롭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2. 혼인의식절차 중 결혼당사자, 주례자, 양가친족 및 친지들이 형식적인 의식절차에 따라서 혼례 의식이 종결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 예로서 예식장 중심의 혼인의식은 결혼당사자와 양가친족 및 친지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간의 교류나 친교와 화목의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의식이 결혼당사자와 양가친족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현재까지 혼인문화는 지나친 남성본위적인 형식과 상업주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전통사회가 지니고 있는 측면은 오히려 퇴색되고 있다. 혼인문화는 결혼당사자들의 행복한 결합과 미래의 발전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폐백절차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지나친 혼수비용이 드는 혼인문화는 추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문화는 전통적인 긍정적 측면을 되살린 혼인 당사자와 양가중심으로 상호간에 합의된 수준에서 화합과 공동의 축하의식으로 새롭게 정착됨으로써 혼인문화의 다양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모란(1993). 한국사회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박혜인(1981). 전통적 혼인의례에 나타나는 한국가족의 성격. 여성문제연구, 제10집, 효성여자대학부설 한국여성 문제연구소. 307-320
- _____(1991). 한국 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7-73.
- 손승영(1995). 가정의례.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_____(1996). 혼례문화의 상업화와 가부장적 특성. 가족과 혼인문화. 49-76.
- 안정남(1991). 현대 결혼의례의 의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77-198.
- 유영주 · 김경신 ·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127-141.
- 이현송 · 배화옥(1996).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철수(1991).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하경(1996).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47-161.
- 정용선 · 김경연 · 김득성(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회공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15-136.
- 최경숙(1995). 결혼 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 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 - 도시중간계층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애(1993). 혼수전쟁. 청산.
-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5). 결혼예식장 이용실태 및 혼례문화에 관한 의식조사.
- 한국사회문화연구원(1996a). 혼례문화에 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제14차 공개토론 자료집.
- _____(1996b). 한국의 혼례문화: 그 문제점과 대안. 제14차 공개토론 자료집.
- 황경애 · 이길표(1994). 혼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3-174.
- Ember, C. R., M. Ember(1993). Cultural Anthropology(eds.), New Jersey:Prentice Hall.